

# 펫코노미 시대의 반려동물과 동물원 동물에 관한 연구

김석은

건양사이버대학교 반려동물관리학과  
e-mail: sekim@kycu.ac.kr

## A Study on Companion Animals and Zoo Animals in the Pet-conomy Era

Seok-Eun Kim

Dept. of Companion Animal Management Science, Konyang Cyber University

### 요약

본 논문에서는 세계미래학회가 예측한 대로 반려동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펫코노미 시대에 반려동물과 동물원 동물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반려동물 연관 산업인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주력산업은 2027년 15조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인간보다 평균수명이 짧은 반려동물을 대신하여 동물원 동물이 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어린이부터 초고령사회의 어르신까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할 것을 약속드린다.

고 행복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의 대책으로 우리나라의 동물원 동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서론

세계미래학회는 21세기 10대 전망에서 세계인구는 2035년부터 증가세가 멈추는 대신에 애완(반려)동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다[1]. 우리나라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고 있어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고 있다. 지난해 세계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1680억달러로 2023년에는 9.5% 성장한 1840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해마다 규모가 증가하는 블루오션으로 각광받고 있어 우리나라의 산업계도 펫코노미(Pet + Economy)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발표하였다. 펫코노미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생산 및 산업 그리고 소비활동을 의미한다.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자녀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투자를 하듯 반려동물을 마치 가족과 같이 여기는 ‘펫팸(Pet + Family)족’은 가족인 반려동물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돈을 아끼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를 맞게 되어 전 국민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된다. 사랑하는 가족이었던 반려동물을 상실하면서 오는 우울감, 상실감 등의 ‘펫로스 증후군’은 심한 우울증을 경험하게 된다.

반려동물은 정서적, 경제적, 문화 환경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2] 어린이부터 초고령사회의 어르신들이 안전하

### 2. 반려동물의 역할

#### 2.1. 반려동물의 정의

일반적으로 애완(愛玩) 동물은 가까이 두고 ‘보아서 아름답고, 길러서 즐거운’ 동물을 말하였는데, 최근에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반려(伴侶)동물이라고 한다[3]. 개와 고양이, 토끼, 기니피그, 족제비, 돼지, 닭 등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과 같이 지내는 동물이라면 모두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 있다.

#### 2.2. 반려동물의 역할

##### 2.2.1. 정서적 역할

아동들보다 노인들에게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노년기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정서적 지지가 더 높다. 건강증진을 위한 매개체로도 활용될 수 있고,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에도 그 역할이 크다.

##### 2.2.2. 경제적 역할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펫코노미(Pet-conomy: pet+economy)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펫푸드, 펫트립,

펫택시, 펫호텔, 애견유치원, 펫보험, 펫장례 등 반려동물 산업 시장은 연 10%의 고속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미용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해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시장 규모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였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사료, 진료, 미용, 장묘, 보험 등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산업 전체를 의미한다.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분야는 주력산업이다.

### 2.2.3. 문화 환경적 역할

문화(文化)는 한 사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양식이며, 후천적인 학습을 통하여 공유하는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이다. 각 지역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하고 있어 앞으로 반려동물 문화는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정착할 것이다.

## 3. 동물원 동물의 역할

### 3.1. 동물원 동물의 정의

동물원(動物園)은 살아있는 동물을 사육, 연구해서 일반에게 공개하는 장소이다. 보통 육상동물을 중심으로 다루는 곳을 말하며, 이곳에서 사육되는 동물이 동물원 동물이다. 애완용 동물원으로 불리는 소규모의 애완용 농장은 동물을 만져보고 동물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유순한 가정 동물과 야생종의 조합을 특징으로 한다[4].



[그림 1] 동물원의 캥거루(출처: 호주 Tree Kangaroo)

#### 3.1.1. 동물원의 어원

동물원을 가리키는 영단어 주(zoo)는 동물을 연구하는 동물학을 말한다. 이 용어(Zoological garden)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으며, 출입말인 “zoo”는 1828년 과학 연구와 1857년 일반인에게 개방된 런던동물원(London Zoological Gardens)에서 처음 사용되었다[4].

### 3.1.2. 한국의 동물원

창경원은 일제강점기인 1909년 11월 1일에 창경궁 안에 동·식물원을 만들어 창경궁의 격을 낮추기 위한 책략으로 개원하여 유원지가 되었다. 이후 일부 동·식물은 서울대공원으로 옮기고 1983년에 본래의 ‘창경궁’으로 고쳤다. 한국의 동물원은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어린이대공원, 대전동물원, 전주동물원, 청주동물원, 우치공원(광주), 달성공원(대구) 등과 민간 동물원이 다수 있다. 전국 각지에 소규모 체험 동물농장이 있어 어린이들의 동물 체험과 정서에 도움을 주고 있다.

[표 1] 우리나라의 동물원

공원명	특징
서울대공원(Seoul Grand Park)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공원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물원과 식물원이 있고, 놀이공원인 서울랜드가 있다. 시설 운영관리는 서울특별시청에서 담당한다.
에버랜드(Everland)	경기도 용인에 있는 놀이공원이다. 봄·여름·가을·겨울 등 여러 가지 테마가 있다.
어린이대공원(Children's Grand Park)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가족단위 휴식 공간이다. 1973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개장하였다. 개장 당시에는 동양 최대규모였다. 푸른 숲과 잔디의 녹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위한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서 시민공원의 역할을 한다. 또한 교양시설, 동물원, 식물원, 놀이시설 등을 갖춘 학습교육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전동물원(O-World)	대전 중구에 위치한 종합 테마공원이다. 2002년 개장한 대전 동물원과 2009년 개장한 플라워랜드를 통합하였고, 2016년 버드랜드를 개장하여 우리나라 두 번째 규모의 대형 동물원이다. 천연기념물인 한국늑대와 얼룩 삼살개를 복원하여 공개하였다.
전주동물원	전북 전주에 있는 동물원이다. 1978년 6월 10일 문을 열었다. 1997년 2월 전주시 동물원으로 개편하였다. 지방동물원 중 가장 오래된 동물원으로 과천 서울대공원,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이다. 도심 속에서 지친 시민들을 위한 푸른 쉼터로서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봄에 시민들이 벚꽃을 구경할 수 있도록 밤 10시까지 야간 개장을 한다.
청주동물원	충북 청주시에 있는 동물원이다. 1997년 7월 1일 문을 열었다. 2000년 12월 31일에는 조류 테마공원을 조성하였다. 매년 8월 15일 광복절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물교실이 8월 중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광주 우치공원	공립 동물원 겸 식물원으로 광주 북구에 위치하고 있다. 1992년 동물원, 1994년에는 식물원을 준공·개원하였다. 2002년에는 체육시설지구(골프연습장)를 준공·개원하였다. 각종 동물사와 열대조류관, 식물원과 허브체험장도 있다.
달성공원	대구 중구에 있는 공원이다. 동물원은 연중무휴로 겨울(11-2월)에는 10-17시, 봄과 가을(3-4, 9-10월)에는 10-18시, 여름(5-8월)에는 10-19시까지 문을 연다. 사슴사, 공작사, 독수리사, 침팬지사, 늑대사, 물새장, 곰사, 가급사, 물개사, 호랑이사, 소조류사, 코끼리사, 원숭이사, 사자사, 잉어장, 앵무

새마을, 토끼마을 등이 있다.

※ 자료: 위키백과(네이버)의 내용을 재편집 함.

### 3.2 동물원의 역할

동물원은 동물의 복지문제, 도덕상의 문제, 행동제한, 짧은 수명, 기후문제 등으로 해당 동물에게는 제약이 있지만 교육, 연구, 자연보호(멸종위기종 보호), 정서적 효과 등이 있다.

미국의 동물원은 연간 1억 8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는 인구수 약 3억 4천만명의 53%에 해당된다.



[그림 2] 서울대공원(출처: 인터넷)

## 4. 결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랑을 주고받는 가족같은 반려동물은 1인가구가 늘어나고 초고령사회와 더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팽창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4대 분야를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다 보면 인간보다 평균수명이 짧은 반려동물을 먼저 상실하게 되어 심한 우울감을 겪게 된다. 이의 대안으로 동물원을 자주 찾아 정서적인 안정을 찾았으면 한다. 반려동물을 양육할 때 느끼는 정서와는 또 다른 정서일 수도 있겠지만 동물원은 그 역할을 나누어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자체마다 공원 등을 조성하여 가까이 자주 방문하는 것도 건강에 이로울 것이다.

앞으로 심층적인 연구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동물원 동물의 관람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향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보고할 것을 약속 드린다.

### 참고문헌

- [1] 유동근·윤남수·박성문, “펫 비즈니스 창업과 경영”, 연경미디어, pp. 1-299, 2004.
- [2] 김석은, “반려동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

성 의견(義犬)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20권 12호, pp. 659-670, 1월, 2020년.

- [3] 김계웅·김학연·김동욱·김석은·김수기·박진기·안종호·이원영·조광현·조익환, “제3판 동물자원학개론”, 선진문화사, pp. 1-344, 2021.
- [4] 위키백과, “동물원”, 네이버, 2023.